

This is a volunteer translation into Korean of the article titled "Contagion" which can be found on pages 228-229 of *Miscellaneous Writings 1883-1896* by Mary Baker Eddy. In order to give the reader access to the original statement of Christian Science discovered by Mary Baker Eddy, the English text appears on the page alongside the translated text. This translation has not been reviewed by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or The Christian Science Board of Directors.

CONTAGION

Whatever man sees, feels, or in any way takes cognizance of, must be caught through mind; inasmuch as perception, sensation, and consciousness belong to mind and not to matter. Floating with the popular current of mortal thought without questioning the reliability of its conclusions, we do what others do, believe what others believe, and say what others say. Common consent is contagious, and it makes disease catching.

People believe in infectious and contagious diseases, and that any one is liable to have them under certain predisposing or exciting causes. This mental state prepares one to have any disease whenever there appear the circumstances which he believes produce it. If he believed as sincerely that health is catching when exposed to contact with healthy people, he would catch their state of feeling quite as surely and with better effect than he does the sick man's.

If only the people would believe that good is more contagious than evil, since God is omnipresence, how much more certain would be the doctor's success, and the clergyman's conversion of sinners. And if only the pulpit would encourage faith in God in this direction, and faith in Mind over all other influences governing the receptivity of the body, theology would teach man as David taught: "Because thou hast made the Lord, which is my refuge, even the most High thy habitation; there shall no evil befall thee, neither shall any plague come nigh thy dwelling."

The confidence of mankind in contagious disease would thus become beautifully less; and in the same proportion would faith in the power of God to heal and to save mankind increase, until the whole human race would become healthier, holier, happier, and longer lived. A calm, Christian state of mind is a better preventive of contagion than a drug, or than any other possible sanative method; and the "perfect Love" that "casteth out fear" is a sure defense.

이 글은 "Contagion" [전염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자원해서 한국어로 번역 한 것으로, Mary Baker Eddy (메리 베이커 에디) 여사의 *Miscellaneous Writings 1883-1896* [산문집(散文集) 1883-1896] 년의 228-229 쪽 에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발견한 Mary Baker Eddy (메리 베이커 에디) 여사가 기고한 원문을 독자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어 텍스트와 번역 된 텍스트도 함께 실었습니다. 이 번역은 크리스천 사이언스 출판 협회나 크리스천 사이언스 이사회에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염병

사람이 보고 느끼고 인지하는 것은 무엇이든 마음을 통해 받아들여진다, 이는 인식, 감각, 의식은 마음에 속하고 물질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 결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인간 사고의 대중적인 흐름에 따라 우왕좌왕하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대중의 동기가 전염병이며, 이것이 전염병에 걸리게 만든다.

사람들은 감염과 접촉에 의한 전염병을 믿으며, 누구든지 특정 소인적素因의 원인이나 촉진 원인으로 전염병에 감염되기 싫다고 믿는다. 이러한 자신의 심리적 상태가 병이 발생한다고 믿는 상황이 나타날 때마다 병들게 된다. 만약 사람이 건강한 사람과 접촉할 때 건강이 전염된다고 진심으로 믿었다면, 그는 그 병자의 상태보다 더 확실하고 더 나은 효능으로 자신의 정신 상태를 가질 것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므로, 사람들이 선함이 악행보다 더 전염이 잘 된다고 믿는다면, 의사의 성공과 성직자의 죄인 개심이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것이다. 몸의 수용성을 통제하는, 즉 모든 영향을 지배하는 마음에 대한 믿음을 이런 방향으로 종교계가 격려한다면, 신학은 다윗이 가르쳤던 것처럼 "어둠 속에서만 연하는 전염병이나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전염병의 신뢰감은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고; 그와 같은 비율로 전 인류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지고, 더 오래 살 때까지, 인간을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은 증대될 것이다. 고요하고 그리스도적인 마음 상태는 약물이나 다른 가능한 치료법보다 전염병 예방에 더 나은 예방법이다; 그리고 "공포를 쫓아내는" "완벽한 사랑"이 모든 질병에 확실한 방어 수단이다.